

논리왕 박지윤 vs 촉 빠른 유재석

티빙 오리지널 '여고추리반' 박지윤
새라여고 동아리 멤버로 사건 투입
넷플릭스 '범바나' 시즌3 유재석
거대 비밀조직 파헤치는 임무 맡아

'추리여제' 박지윤 VS '허당 탐정' 유재석.

추리 예능프로그램 강자들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방송인 박지윤과 유재석이 각각 29일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여고추리반'과 22일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범바나) 시즌3을 내놓는다. 추리계 임 소재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온 이들이 나란히 공개하는 신작을 통해 비교해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출연진과 제작진도 화려하다. 박지윤은 tvN '더 지니어스' '대탈출' 시리즈 등 추리 예능프로그램에서 장기를 발휘해온 정종연 PD와 새롭게 손잡았다. 유재석은 시즌1·2를 함께한 연기자 박민영, 김세정, 예소 수호 등과 다시 한번 '탐정'으로 변신해 거대 비밀조직을 파헤친다.

●'여고추리반' 박지윤... '논리왕'의 복귀

새라여고의 추리 동아리 멤버로서 주어진 사건을 해결한다. 앞서 JTBC '크라임씬' 시리즈를 통해 입증한 논리 정연한 추리 실력을 다시 발휘한다. 경험



두 '추리 예능 강자'가 잇따라 시청자를 만난다. 방송인 박지윤(왼쪽)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여고추리반'을, 유재석은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시즌3을 각각 내놓는다. 사진제공 | 티빙·넷플릭스



자답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노련하게 단서를 포착해나간다.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추리 장르는 특히 애착이 간다"면서 "프로그램의 꼭 짜인 미스터리 이야기에 이끌려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여고추리반'에서 선보일 매력은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드러내는 팀워크"이다. 이를 위해 '연출자

의 시선으로 동료들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추리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역할을 도맡았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방송인 장도연, 이은재(재제) SBS 온라인콘텐츠 PD, 가수 비비, 아이즈원 최예나는 이구동성으로 "추리 실력 1위"라 꼽았다. 장도연은 "박지윤을 필두로 한 신선한 조합이 다른 예능프로그램과는 색다른 분위기

를 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출자 정종연 PD의 신뢰도 남다르다. 정 PD는 박지윤에 대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출연자"라고 평가했다.

●'범바나3' 유재석...시리즈의 구심점

2018년 시작한 '범바나' 모든 시즌에 참여한 중심 멤버다. 탐정단을 이끌면서 진행자 역할로 활약한다. '허당' 면모로 웃음을 주는 사이에 끊임없이 단서를 연결해 이야기를 완성한다. 10년간 SBS '런닝맨'으로 다진 남다른 '촉'을 무기 삼아 탐정단에 숨어든 '배신자'도 단번에 색출해낸다.

더욱 복잡한 인물 구도로 추리의 재미를 살린 시즌3에서는 혼란과 의심을 거듭한다. 시즌1의 배신자 이광수, 시즌2의 범인 '꽃의 살인마' 이승기가 다시 합류했다. 7일 공개된 예고편에서 "너 여기 한패지?"라며 멤버들을 압박하는 유재석의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시리즈의 최종편에는 그동안 쌓아올린 '떡밥'(단서)들도 모두 등장한다. 연출자 조효진 PD는 "최고의 범죄 수사는 범인을 잡는 것일까, 범인이 생기기 않도록 예방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담아 새로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석은 19일 오후 3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여해 관련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유재석 기자 yjh0304@donga.com

아역 앨런 김·노엘 조이 새 발견 영화 '미나리'의 또다른 성공 비결



앨런 김

더욱 그렇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이민 한인가족의 이야기.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 이를 그려낸 영화의 또 다른 주역도 아역들이다. 어린 아들 역 앨런 김과 누나 노엘 조이다. 이번 작품이 데뷔작으로, 캐스팅 디렉터 줄리아 김이 교회와 학교 등 미국 전역의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벌인 오디션을 거쳤다. 연기 경력 전무한 이들을 카메라 앞에 내세운 정이삭 감독과 줄리아 김의 성과라 할 만하다.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 플랜B가 제작한 영화에는 이 회사 소속 프로듀서 크리스티나 오도 참여했다. 브래드 피트 주연 '애드 애스트라'와 봉준호 감독의 '옥자' 등에서 프로듀서로 일했다. 영화 제작비 투자를 이끌어낸 또 한 명의 공신이다.

'미나리'는 20여원의 '초저예산' 영화로, 제작비 규모는 세트와 공간적 배경 등을 꾸미는 데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한인가족의 신산한 일상을 프로덕션 디자인으로 빚어낸 스태프도 한국인이다. 이영옥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한국영화 '초능력자' 등에 참여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이다.

'미나리'의 한 관계자는 18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 '레버넌트: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시각효과와 '헝거 게임' 등에서 일한 해리 윤 편집감독 등과 함께 이들이 "적은 예산으로 영화에 아름다운 감성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가족 이야기가 이끄는 힘에 이들 스태프의 노력이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 번 찍으면 무한 신뢰...설경구의 다작 이유

배우 설경구가 올해 무려 6편의 신작 영화를 개봉하거나 촬영에 돌입한다. 배우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1996년 영화 '꽃잎'으로 데뷔한 이후 크게 눈에 띄는 다작 행보이다. 이전 함께 호흡한 연출자들과 새롭게 손을 잡고 스크린에 펼칠 작품도 적지 않아 더욱 눈길을 끈다.

설경구는 '자산어보'와 '킹메이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소년들', '야차', '유령' 등 6편을 올해 출연작 목록에 올려놓았다. 이 가운데 '자산어보'의 이준익·'킹메이커'의 변성현·'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의 김지훈 감독과 이전에 작업을 함께 했다. 이준익 감독과는 2013년 '소원'

으로, 변성현 감독과는 2016년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에 앞서 2012년 김지훈 감독의 '타워'에 주연으로 나선 바 있다.

앞선 작품은 모두 설경구의 연기 인생에 작은 변곡점으로 남았다. '타워'와 '소원'으로 뜨거운 희생정신과 부상에 연기를 펼친 설경구는 이후 더욱 다양한 무대를 선택하게 됐다. 특히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아이돌급' 인기를 모으며 일명 '불한당원'이라 불리는 두터운 팬덤을 구축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수트 차림의 멋스러움으로 새롭게 시선을 끈 그는 이를 계기로 첫 팬미팅을 열기도 했다.

올해 무려 6편 개봉하거나 촬영이준익 등 함께 한 연출자와 호흡

이 같은 성과는 설경구가 감독들과 영화적 공감대를 쌓고 인간적 신뢰로까지 연결할 힘이 된다는 시선이 나온다. 18일 한 영화관계자는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설경구의 인간적 면모도 한몫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경구는 변성현 감독이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 개봉 당시 과거 SNS 글로 곤욕을 치를 때 등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2017년 연말 한 시상식에서 "변 감독이 은둔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박수를 달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설경구 주연 영화 '자산어보'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점포
소자본 배달창업 수비닭8
(점포 임대료 NO)**

**업종 변경 없이 샵인샵으로
두개 매장을 동시에 운영**

**-인건비 NO
-임대료 걱정없이
안정적 수익 보장
-순마진 60% 이상**

zeusfc.kr

검색창 제우스 푸드 검색하세요

제우스 푸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조리(100%완제품 공급) 샵인샵 적극 추천



떡볶이 수비닭



수비드 찜닭



수비드 크림치즈 통닭



수비드로제치즈 통닭

왜 제우스푸드인가!!

-개인이 집에서하는 소자본 창업
-업변없이 하는 샵인샵 매장운영
-100% 완전조리식품 원팩 공급
-수비닭8 조리시간(8분 OK)
-가맹비 NO
-로열티 NO
-인테리어 NO

완전 조리된수비드8분요리 수비드닭8



불불매운
통닭



바비큐
통닭



떡볶이
통닭



맥앤치즈
통닭



반계탕



반계
얼큰닭칼국수



반계
닭칼국수

전국지사 및 창업 문의 02)428-8002

전북 지사 010)3556-2204
수도권 지사 010)3770-7869